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

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사회부 담당

발 신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
(담당: 최세안 070-5176-8163, fix.nhrc@gmail.com)

제 목 김용원 위원 3년 임기 중 '인권'을 위해 가장 크게 기여한 순간- 2026년 2월 5일 오후 3시,
그가 인권위를 떠나는 바로 그 순간

날 짜 2026. 2. 5.(목) (총 2쪽)

성명

김용원 위원 3년 임기 중
'인권'을 위해 가장 크게 기여한 순간
- 2026년 2월 5일 오후 3시,
그가 인권위를 떠나는 바로 그 순간

오늘(2월 5일), 지난 3년 동안 국가인권위원회의 위상을 땅바닥에 떨어뜨린 것도 모자라, 전례 없는 방식으로 무너뜨렸던 김용원 상임위원 겸 군인권보호관의 임기가 드디어 만료되었다. 그가 재임 기간 보여준 행보는 지난 25년 국가인권위원회 역사에서 독보적으로 암울한 족적을 남겼다. 인권의 가치를 보듬어야 할 입으로 '반인권적 막말 잔치'로 스스로의 무도함을 가감없이 드러냈고,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를 경청해야 할 귀를 닫고 '탄압과 독선'으로 일관했다.

그의 퇴임은 단순한 인적 교체를 넘어, 국가인권위원회가 비로소 정상적인 인권 옹호 기관으로 회복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 갖춰졌음을 의미한다.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이라는 직무를 수행하며 본인이 그토록 갈구했던 '권위'가, 정작 본인의 연행으로 인해 어떻게 무너졌는지 성찰하지 않은 채 떠나는 초라한 뒷 모습은 우리 사회에 깊은 유감을 남긴다.

김용원씨에게 마지막으로 전한다. 퇴직 이후의 삶에서는 부디 그간 본인이 일삼았던 혐오와 차별, 오만과 무지의 행보가 우리 사회에 얼마나 깊은 상처를 남겼는지 무겁게 되돌아보고 반성하기를 바란다. 김용원씨가 떠난 자리에서 우리는 비로소 '인권'의 온기를 다시 지피기 시작할 것이다.

김용원씨의 퇴직이 국가인권위원회 정상화의 씨앗이 되고, 우리 사회에는 반면교사의 소중한 교훈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

2026. 2. 5.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

공익인권법재단공감 공익인권변호사모임희망을만드는법 구속노동자후원회 국제민주연대
군인권센터 녹색당 다산인권센터 대구기독교교회협의회인권위원회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전충남인권연대 대한불교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레드리본인권연대 무지개인권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소수자인권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 생명안전 시민넷
서울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 양심과인권-나무 울산인권운동연대 인권교육센터들
인권실천시민행동 인권운동네트워크바람 인권운동사랑방 일본군성노예제문제해결을위한
정의기억연대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전국금속노동조합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제주평화인권연구소왓 종교자유정책연구원 진보네트워크센터 차별금지법제정총북연대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체육시민연대 충남인권교육활동가모임부들 (총 36개 단체
가나다순)